현대소설연구(제85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2.03.85.513

이호철의 1960년대 기독교 비판에 대한 연구

–'세속화 논쟁'과 〈고여 있는 바닥〉을 중심으로*

조 현 일**

요약

「고여 있는 바닥」(『현대문학』, 1965.6)은 이후 작품집들에 실리지 않아 거의 잊힌 작품이다. 연구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고여 있는 바닥」과 1960년대 한국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 세속화 논쟁이 있고, 「고여 있는 바닥」이 세속화론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사상』과 『사상계』에 실린 세속화 신학을 우선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호철의 「고여 있는 바닥」의 기독교 풍자와 비판을 규명하고 있다. 『기독교사상』지를 통해 본격적인 신학 논쟁, 즉 세속화 논쟁이 벌어진다. 특히 『사상계』에서는 강원룡이 세속화론에 입각해 당대 기독교의 광신주의와 위선을 비판한다. 「고여 있는 바닥」 역시 이 두 가지 방향성에서 당대 기독교를 비판, 풍자한다. 아래 교회(성결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광신주의를 비판한다. 언덕 교회(장로교회)를 통해서는 기독교의 위선과 바리새적 분리주의 그리고 교회 간 경쟁과 적대를 비판한다. 교회 간 경쟁과 적대의 근원에는 한국교회의 특징인 개교회주의 운영 원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두 가지 방향에 이루어지는 「고여 있는 바닥」의 1960년대 기독교 비판은 현재에도 유효성을 잃지 않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고여 있는 바닥」, 세속화, 본회퍼, 강원룡, 『기독교사상』, 『사상계』, 광신, 바리새주의, 풍자, 장로교, 성결교, 기독교, 세속화 논쟁, 비종교성, 개교회주의, 찬송가, 성서, 적대

---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목차

1. 서론
2. ‘세속화 논쟁’과 기독교 비판의 두 방향
3. ‘밑 교회’(성결교회)의 광신 비판
4. ‘언덕 교회’(장로교회)의 위선과 바리새주의 비판
5. 결론

1. 서론

이호철의 생애에서 1960년대는 「판문점」, 「닳아지는 살」 연작, 「부시장 부임지 안가다」, 『소시민』, 『서울은 만원이다』를 발표하는 등 가장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한 시기이다. 이호철은 1960년대에 “상황성의 인식으로부터 역사성의 발견”[1]으로 그리고 “개인적 현실로부터 사회적 사실로의 관심의 이행”[2]으로 나아간다. 그의 1960년대 문학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는 전후 문학의 협소함을 넘어서 리얼리즘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내내 이호철은 다음과 같은 작가 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

> 일상의 여러 현상은 반드시 그 자체의 독자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의 통일성 속에서 일관한 역사적 문맥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개개의 지엽적인 것은 전체성의 파악 속에서 의미가 드러나고 공감의 넓이와 진정한 리얼리티를 획득할 수 있다.[3]

「소설가의 자세」에서 이호철은 “전체의 통일성”과 “역사적 문맥”, “공감

1) 권영민, 「닫힘과 열림의 변증법」, 『한국현대작품연구』, 문학사상사, 1991, 179면.
2) 정명환, 「실향민의 문학: 이호철의 소시민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1967.6, 236면.
3) 이호철, 「소설가의 자세」, 『현대한국문학전집8』, 신구문화, 1968, 474면.

의 넓이"와 "진정한 리얼리티"를 강조한다.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는가와는 별도로 이호철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남한 사회의 리얼리티를 전체적이고 역사적인 문맥에서 파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이호철의 소설들 중 "또 하나의 성취군"[4]으로 평가 받는 풍자소설들 역시 이와 같은 리얼리즘 정신의 소산이다.[5] "풍자문학은 어떤 의미에서든 리얼리즘의 한 正道"[6]라는 1968년 김윤식의 주장처럼 1960년대 이호철의 풍자소설은 리얼리즘적 실천의 한 방법으로 창작되었다. "1960년대 중반은 가히 풍자소설의 시대였다."[7]라는 한 연구자의 지적에서 드러나듯, 60년대 풍자소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런 만큼 이호철의 풍자소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가 「판문점」(1961), 「부시장 부임지로 안 가다」(1965), 「고여 있는 바닥: 어느 이발소에서」(1966), 「탈사육 회의」(1966), 「퇴역선임하사」(1966) 등에 집중되어 있다.[8] 본고의 연구 대상인 「고여있는 바닥」(『현대문학』 1965.6)은 이호철의 풍자소설 가운데 어느 작품 못지않게 '역사적 문맥'에 입각해 '공감의 넓이'와 '진정한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 임규찬, 「상황과 운명, 탈향과 귀향 사이: 이호철의 소설세계」, 『창작과비평』, 2016.12, 394면

5) 이호규 역시 "이호철의 풍자소설은 (중략) 리얼리즘의 또 다른 전술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 이호규, 「1960년대 패러디 소설의 반영론적 성격 연구」, 『어문논집』, 중어중문학회, 2009, 411면.

6) 김윤식, 「풍자의 방법과 리얼리즘」, 『현대문학』, 1968.10, 304면.

7) 류동규, 「이호철의 자전적 소설에 나타난 월남민의 정체성」, 『비평문학』 33호, 비평문학회, 2009, 194면.

8) 민현기(「이호철의 풍자소설」, 『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및 작품론』, 새미, 1989)는 「부시장 부임지 안 가다」와 「퇴역선임하사」를, 김준현(「반공주의의 내면화와 1960년대 풍자소설의 한 경향-이호철, 서기원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1집, 상허학회, 2007)은 「부시장 부임지로 안 가다」, 「고여 있는 바닥: 어느 이발소에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호규(「1960년대 패러디 소설의 반영론적 성격 연구」, 『어문논집』 42집, 중앙어문학회, 2009)는 「탈사육자 회의」를, 김택호(「일상에 억압된 소시민들에 대한 풍자-1960년대 이호철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No 14, 2005)는 「판문점」과 「닳아지는 살들」, 「큰 산」을 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여 있는 바닥」(『현대문학』, 1965.6)이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이 작품이 이후 발간된 어느 작품집에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사실상 누락이 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호철은 「고여 있는 바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고여 있는 바닥'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작품을 창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의 남한 사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은 「고여 있는 바닥-어느 이발소에서」(『창작과비평』, 1966.1)와 「고여 있는 바닥-퇴역선임하사(1)」(『한국문학』, 1966 春), 「고여있는 바닥-퇴역선임하사(2)」(『한국문학 2』, 1966 夏), 「고여 있는 바닥-퇴역선임하사(3)」(『한국문학 3』, 1966 秋)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1965년 여름 『현대문학』에 발표된 「고여 있는 바닥」은 부제가 달려 있지 않고[9], 성결교회와 장로교회의 적대적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서 이제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 30년간 한국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룬다. 그 근원적인 모습이 6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고여 있는 바닥」은 당대 기독교를 근원적인 차원에서 신랄하게 풍자, 비판하고 있다. 1960년대에 기독교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1963-1966)과 하근찬의 「삼각의 집」(1966)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작품이 주로 신식민성의 관점에서 기독교 문제를 다루었다면[10], 이호철은 신학적 차원으로까지 심화하여 기독교를 비판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비판의 배경에 『기독교사상』, 『사상계』에 게재된 세속화 신학이 놓여 있었다

9) 「고여 있는 바닥」이라는 제목의 작품들 가운데 이 작품만 부제가 없는 것은 아마도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여 있는 바닥'이라는 제목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후의 작품을 창작하면서 구별을 위해 부제를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

10) 양윤모, 「서구문화의 수용과 혼란에 대한 연구: 최인훈의 '크리스마스캐럴' 연구」, 『우리어문연구』 14, 우리어문학회, 2000 참조.

고 보고 「고여 있는 바닥」과 비교하면서 그 구체적인 면모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세속화 논쟁’과 기독교 비판의 두 방향

「고여있는 바닥」은 D 온천의 한 길가에 있는 “밑 교회”와, 언덕 위에 위치한 “언덕 교회” 간의 갈등을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다. 두 교회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다. 퇴락한 목조건물의 밑 교회는 그 지역의 서민층이 주로 나오는 토박이 교회(성결교회)이고, 새 천막으로 지워진 언덕 교회는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피난민들이나, 근처 부자들이 나오는 피난 교회(장로교회)이다. 밑 교회의 목사는 사실 목사 자격증이 없는, 월남한 전직 국민학교 교사이고, 언덕 교회의 목사는 영국 유학파 카톨릭 신부로서 신교 개종 후 목사가 된 사람이다. 밑 교회 목사의 딸은 “양부인”이고, 목사 가족은 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해나가고 있다. 반면 언덕 교회 목사의 아들은 테너 가수로 성가대를 이끌고 있으며 성가대 덕으로 이 교회는 품위를 인정받고 있다. 교회의 분위기 또한 대조적인데 밑 교회는 “모두 마룻바닥을 두드리고 눈을 까뒤집고 고함을 지르고, 그야말로 광신적 분위기”(97면)라면, 언덕 교회는 교인들부터 “교양과 품위가 넘쳐”흐르고 교회 역시 “품위와 격을 인정받”(97면)고 있다.

> 언덕 교회의 무테 금테 마나님들은 밑 교회를 경멸과 모멸에 찬 소리로 험구를 하고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었지만, 밑 교회에서는 언덕 교회에 대하여 존경과 외포와 선망을 품고 있었다.(101면)

평소 한쪽은 경멸과 모멸을, 다른 한쪽은 존경과 선망의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언덕 교회를 다니는 마나님들이 밑 교회를 없애버리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밑 교회의 “존경과 외포와 선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웬 차가운 적의가 일어 오르기 시작”(107면)하더니 급기야는 목사와 전 신도가 언덕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불태워버리며, 밑 교회 목사는 천막에서 나오지 않은 채 불타 죽는다. 다음 날 밑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까지 불태운 후 밤마다 광야로 나가 “광란”의 기도를 드리는 반면, 언덕 교회는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벽돌 건물을 세우고, 더욱 번성하는 것으로 작품이 끝난다.

작가는 두 교회의 대조적인 모습을 결말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종교(기독교) 자체의 세속화’라는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 ‘마나님’들의 지껄임에 이어 제시되는 서술자의 논평이 이를 잘 보여준다.

> 종교 투쟁이라는 피어린 체험은 종교 관용의 이념과 더불어 정교분리의 원칙을 요청해 나서게 했다. 이 요구는 바로 근세 자연법의 이념과 결합함으로써 시민혁명을 통하여 근대민주주의 기본적 원칙으로서 확립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심화 확대를 추진한 이 속화의 정신은 드디어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서 고수되어야 할 종교 자체의 속화까지를 촉진하게 된 것이다. 언덕 교회 목사의 개종, 카톨릭에서 신교에의 개종이, 신념의 소산이 아니라, 세속적 경우의 소산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금테 은테 무테 마나님들의 지껄임은?[11]

서술자는 종교 전쟁, 정교 분리, 시민혁명과 근대민주주의 등을 추진한 것이 “속화의 정신”이라고 규정한다. 근대의 역사 과정 전체를 “속화의 정신”의 결과물, 즉 세속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 자체의 속화까지 촉진”하였다고 비판한다. 이때의 ‘속화’란 종교의 타락이라

11) 이호철, 「고여 있는 바닥」, 『현대문학』, 1965.6, 103면. 앞으로는 「고여 있는 바닥」을 인용할 때 면수만 본문에 밝혀 두기로 한다.

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세속화 과정의 일환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60년대 사회학에서 세속화론을 주도했던 피터 버거에 따르면 세속화란 "사회와 문화의 어떤 영역이 종교적 제도와 상징체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12]을 의미한다. 세속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종교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교가 공적 역할을 상실하면서 개인의 사적 믿음의 영역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된다.[13] 「고여 있는 바닥」은 왜 세속화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 1960년대 이후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점, 당대에 세속화 논쟁이라는 신학적 논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 등의 시대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세속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14] 우리 나라의 경우 오히려 기독교 신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960년 125만 명이었던 기독교 신자 수가 1970년에 219만 명, 1978년에 375만 명으로 증가하고[15], 1960년에 5천 개였던 교회 수가 1970년에 1만 2천 개, 1980년에 2만 1천 개로 증가한다. 80년대에 이르면 서울의 다방 수보다 서울의 교회 수가 많아지게 된다. 종교사회학자 김병서는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증가를 개발과 근대화의 물결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현상으로 본다.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변동, 그리고 대도시화 속에

12) 피터 버거, 이양구 옮김,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93, 125면. 피터 버거는 이것이 사회와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교회의 통제 아래 있던 영역으로부터 기독교의 교회가 퇴거하는 것, 즉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고 교회령을 몰수하고, 교회의 권위로부터 교육이 해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문화와 상징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와 생활, 그리고 예술, 철학, 문학의 영역에서 종교적 내용이 사라지고 과학이 지배적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13) 홍철기, 「세속화와 정치신학」, 『문학과사회』 2014 겨울, 411면.

14) 피터 버거의 뒤를 잇는 스티브 브루스는 문화적 이행의 과정에서 정체성이 위협받을 때, 오히려 종교가 새로운 가치의식을 제공해줌으로써 종교적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최현종은 "1960년대 경제 개발 시기의 우리 나라의 종교인의 증가, 특히 개신교의 성장을 예로" 들고 있다. 최현종, 「세속화」, 『21세기 종교사회학』, 다산출판사, 2013, 96-97면.

1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한국교회100년종합조사연구』, 1982, 144면-149면.

서 겪게 된 불안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갖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여러 근원적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16]

달리 보면 60년대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은 '세속화의 거센 압력 속에 각 교파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 전통을 각기 다르게 선택, 해석하고 이를 통해 한계 분화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17]라고 볼 수도 있다. 50년대에 자유당 정권의 일방적인 비호를 받았던 한국 기독교는 6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18], 종교적 권력이 약화되어 다양한 종교와 교파가 경쟁하는 다원주의적이고 시장경제적 상황에서 각 교파가 자신의 전통과 신학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세속화 논쟁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960년대는 실로 한국 신학의 개화기를 맞이한 시대요 또한 『기독교사상』의 시대이기도 했다."[19] 그리고 세속화 논쟁, 즉 "이 세속성을 떠나서 1960년대 이후의 신학을 이해하기란 어렵다."[20] 1950-60년대 사회학과 신학 모두에서 그리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세속화론이 문제시되었는데, 한국에서도 『기독교사상』을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사상계』에 세속화론에 찬성하는 측의 핵심 내용이 제시되었다.

세속화 논의는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시작되었고, 논쟁이 본격화된 것

16) 김병서는 특히 기독교가 민중해방의 전통을 상실하고 교회 기업체가 되었다는 점과 민족개척의 전통을 상실하고 기복 신앙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김병서, 「한국교회 현상의 사회학적 이해」, 『한국사회와 개신교: 종교사회학적 접근』, 도서출판 한울, 1995 참조.

17) "한계분화란 피터 버거가 사용한 말로, 판매되는 자기 교파의 제품을 경쟁하고 있는 다른 종교 집단의 것과 구분할 필요성에서 각 집단은 자신의 신앙고백적 유산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재영, 「근대화와 한국 개신교: 세속화론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17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09, 17면.

18) 반면 60년대의 불교는 50년대의 기독교의 위치와 흡사하였다. 공화당 지도층에는 불교도가 많았고, 64년 100만명이었던 불교도는 69년 약 500만명으로 성장한다. 유동식, 『한국 신학의 광맥』, 전망사, 1982, 217면.

19) 유동식, 위의 책, 221면.

20) 박봉랑, 『신의 세속화』,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146면.

은 1965년부터이다. 이후 1968년까지 기독교사상을 중심으로 찬반 수십 편의 글이 게재된다.[21] 서남동을 중심으로 하여 강문규, 유동식, 서광선 등의 찬성 측에서는 세속화를 "선택이나 의지적 긍정, 부정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의 전체적인 역사 과정"[22]이면서 "근본적으로는 자유 해방의 과정"[23]으로 보고 세속화를 적극 수용한다. 하비 콕스, 고가르텐, 특히 현대가 신 없이 살아가야 하는 '성인된 세계'라고 주장하는 본회퍼의 논의에 기대어 기독교의 비종교성 주장과 성서의 세속적 해석을 시도한다. 이들은 세속화가 이미 기독교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본다. 기독교 이전의 세계는 신들이 지배하는 장소로서 종교적이며 신화적인 성격을 가졌었다는 것, 기독교가 세상에서 제신을 추방하고 신화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 세상성을 되찾아주었다는 것, 이점에서 기독교는 세속화 운동이었으며, 기독교와 더불어 종교의 비신성화, 세속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예수는 신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사건 발생이고 복음 전달은 사건의 재발생(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본다.[24]

> 실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것이요 결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의례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마;13)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주여 주여'하는 종교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있다. 최후의 심판은 그가 어떻게 작은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마 25:31-46) 소위 세속적 사건을 피해 지나가 버리는 정통적인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 사람을 원하신 것이다.(눅 10:30-12)[25]

21) 박봉랑, 위의 책, 146-150면; 정상운, 「세속화 시대의 성결신학: 성결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2, 102-103면 참조.
22) 강문규, 「세속주의와 세속화」, 『기독교사상』, 1965.2, 44면.
23) 서남동, 「세속화 과정과 그리스도교」, 『기독교사상』, 1966.2, 18면.
24) 서남동, 「복음전달과 그 세속적 해석」, 『기독교사상』, 1965.2, 35-36면.

뒤르켐은 종교의 세 가지 본질적 요소로 신앙, 의례, 공동체를 든다. 이 중에서 의례는 신앙을 유지,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인데,[26] 유동식이 "의례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곧 전통적 의미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세속화론은 결국 폐쇄적인 종교 활동을 넘어서 이웃 사랑의 실천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문학에서 참여문학론이 제시되고 있었다면, 기독교에서는 세속화론은 기독교의 참여론으로 제시되었으며[27], 참여문학론이 1970년대 초반 염무웅, 신경림에 의해 민중문학론으로 나아갔듯이[28] 서남동, 안병무에 의해 민중신학으로 나아가는 거멀못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9]

반면 세속화 반대론자인 허혁, 이종성, 한철하, 김의환 등의 신학자들

25) 유동식, 「복음의 세속성」, 『기독교사상』, 1967.12, 28면.

26) 뒤르켐은 종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게 된다. 종교란 성스러운 사물들, 즉 구별되고 금지된 사물들과 관련된 믿음과 의례가 결합된 체계이다. 이러한 믿음과 의례들은 교회라고 불리는 단일한 도덕적 공동체 안으로 그것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을 통합시킨다." 에밀 뒤르켐, 민혜숙노치준 옮김,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한길사, 2020, 188면.

27) 『기독교사상』 주간인 김관석과 신학자 안병무의 대담인 「종교의 세속화와 사회참여」(『사상계』, 1968.4)는 세속화론이 기독교의 참여론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28) 조현일, 「비상사태기의 문학과 정치: 1970년대 전반기 민중문학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참조.

29) 종교사회학에서는 앞서 제시한 피터 버거의 고전적 세속화론 이후 종교변형론, 탈세속화론, 지구화론의 세속화론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김재명, 「세속화론에 대한 지구화론적 관점의 이해」 『종교문화연구』, 한신대학교종교문화연구소, 2009.6 참조) 대표적인 세속화론자인 피터 버거는 60년대 이후 이슬람과 기독교 근본주의가 오히려 더욱 광범위하게 등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세속화론을 전면 부정하기까지 한다. "우리가 세속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의 세상……도 이전 세계만큼이나 상당할 정도로 종교적이며, 몇몇 지역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종교적이다."(피터 버거, 김덕영 옮김, 「세상의 탈세속화」,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대한기독교서회, 2002, 15면)라고 주장한다. 종교사회학에서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근대성과 세속화의 관계가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60년대 『기독교사상』과 『사상계』에서 제시된 신학적 세속화론의 사상사적 의미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70년대 문학은 세속화론에서 민중신학으로 이어지는 신학적, 사상적 배경 없이 이해되기 힘들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은 세속화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세속과 기독교를 구별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해체에 이를 수 있기에 세속화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허혁은 세속화로부터 그리스도교의 비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30], 이종성은 복음은 세속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31], 김의환은 세속화에 앞서 복음의 주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2] 세속화론 찬성론자들이 매우 다양한 신학적 근거를 들며 논의를 펼쳤다면, 이에 대한 반대론자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이호철이 『기독교사상』에서 전개된 세속화 논쟁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세속화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논의가 『사상계』에도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게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사상계』에 실린 글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33] 고범서의 「독재에 항거한 신학자」(『사상계』, 1964.10)는 본회퍼의 신학을 소개한 글로서 앞서 제시한 주장들을 이미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교적 행위가 기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활 속에서 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자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타를 위해 존재하는 것'(Für-andere-da-sein)에 동참"할 것을 주장한다.[34] 무엇보다도 『사상계』에 게재된 강원룡의 두 편의 글, 즉 「회칠한 무덤을 파헤쳐라: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보고」(1961.11)와 「비종교적인 현대기독교의 파악: 성인이

30) 허혁, 「복음화냐 세속화냐」, 『기독교사상』, 1965.12, 37-40면.

31) 이종성, 「기독교의 세속화와 복음의 주체성」, 『기독교사상』, 1966.3, 19면.

32) 김의환, 「세속화는 기독교를 교회에서 세상으로 옮기는 것인가」, 『기독교사상』, 1967.12, 54면.

33) 당대 지식인에게 『사상계』는 세계를 이해하는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호철 역시 예외는 아닐 터인데, 자서전 이야기인 「구멍 뚫린 화폐」(『아세아』, 1969.2)에서는 자신의 글이 『사상계』에 실린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34) 고범서, 「독재에 항거한 신학자」, 『사상계』, 1964.10, 178면. 세속화 논쟁은 68년 이후 '신의 죽음 신학' 논의로 이어진다.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때, 노홍섭서남동·안병무·윤성범, 「좌담회 신은 과연 죽었는가: 신의 죽음의 신학」, 『사상계』, 1966.8 또한 세속화론과 관련 있다고 할 것이다.

된 세계에서의 크리스찬의 새로운 자세」(1963.9)는 『기독교사상』의 글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을 뿐 아니라, 본 회퍼의 사상에 입각하여 세속화론을 당대 기독교 비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독교사상』의 글들이 다소 원론적인 신학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면, 강원룡의 글은 매우 실천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35]

특히 「비종교적인 현대기독교의 파악: 성인이 된 세계에서의 크리스찬의 새로운 자세」에서는 앞서 살펴본 세속화론의 주요 내용을 모두 서술하면서 한국교회가 첫째, 종교로서의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하며, 둘째, 율법주의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러한 주장에 입각한 당대 기독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신랄한 비판은 이호철의 「고여 있는 바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교회가 이런 소아병적인 종교신앙 속에서 소위 기독교의 전통이나 그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 지적으로 불구자 된 광신자들을 싣고 기독교적 이교에로 전락해버리든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인간들의 사교장으로 타락할 우려가 많은 것이다.[36]

강원룡은 세속화론에 입각해,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모습(이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광신, 기독교적 이교'와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사교장'으로의 전락한다고 비판한다. 세속화론자의 관점에서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독교적 이교(종교성)의 두 방향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이호철이 '밑 교회'와 '언덕 교회'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 세속화론에 입각한, 강원룡의 당대 기독교 비판과 이호철의 「고여

35) 강원룡은 「회칠한 무덤을 파헤쳐라」(『사상계』, 1961.10)에서 기독교가 "세속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모든 생활 환경에서 점점 고립"(267면)하였으며, 신학적으로 바리새적인 성서무오설, 교리주의에 빠졌으며, 교회는 "지옥과 찬란한 천당을 유일한 미끼로 하여 기독교 판매원이나 동원"(267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36) 강원룡, 「비종교적 현대기독교의 파악」, 『사상계』, 1963.9, 224면.

있는 바닥」의 기독교 비판이 두 가지 방향성에서 정확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37]

3. ‘밑 교회(성결교회)’의 광신 비판

앞서 서술한 바 있듯이 ‘밑 교회(성결교회)’는 가난한 토박이 교회다. 퇴락한 목조건물, 서민층의 신도들, 월남한 무능한 전직 교사 출신의 목사 자격증 없는 목사, 양갈보인 그 딸과 그 딸의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 등등은 가난한 토박이 교회의 궁색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밑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광신적 분위기다. 빈곤층은 “신앙 태도에서 감정적 열정과 신비성을 강조하며 흔히 광란적 예배 의식에서 심리적 위안을 찾”[38]기 쉬운데, 아래 교회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 목사는 곧 딸 곁을 떠나, 비교적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교회로 나간다. 나가서는 탁자 위에 잘룩 대가리를 잘라서 올려놓듯이 하고 앉는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의 노파와 아낙네들은 탁자 저편에 그렇게 패배한 한 사람을 앉혀 두고 성경책을 펴고 찬송가 책을 꺼내놓고, 마룻바닥을 두드리고, 눈을 까뒤집고, 고함을 지르고 그야말로 광신적으로 예수님만 찾으면 되었다. (중략) 예수님은 죽었다 저렇게 야위어빠진 예수님은 대가리를 잘룩 잘리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아져 있다.(100면)

37) 본고는 주로 신학적 차원에 집중하고 있다. 강원룡, 김재준을 위시한 기장(한국기독교장로회)과 한신(한신대학)의 계보와 정치적 사상에 대해서는 김건우의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느티나무책방, 2017)을 참고하기 바람.

38) 김병서, 「한국교회의 계층성과 장로제도」, 『기독교사상』, 1994.6, 91면.

우선 교회에서 목사는 “탁자 위에 잘룩 대가리를 잘라 올려놓듯이 하고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러한 목사가 설교를 위해, 바리새인에 대해 분노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7절을 읽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세례 요한은 이후 헤롯에 의해 목이 잘리는데, 목사가 그의 모습에 비유되기 때문이다.[39] “잘룩 잘라진 목사의 대가리”(101면), “흡사 모가지를 잘룩 잘라서 탁자 위에 올려 놓은 것처럼”(106면) “동그마니 앉은 목사의 대가리”(107면) 등 이러한 구절은 작품 전체에 걸쳐 6번 이상 반복된다. 예수님이 목이 잘려 올려놓아져 있다는 인용문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목사는 고난을 상징하는, 목이 잘린 세례 요한, 나아가서 예수에 매우 강하게 빗대어지고 있다. 목사가 뒷간을 가기 위해 잠깐 나설 때조차 신도들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107면)라고 외치며 따라나서는 장면은 고난의 상징으로서의 목사와, 그러한 목사를 뒤따르는 신도들의 절망적인 심정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목사를 앞에 놓고 신도들이 행하는 예배는 “마룻바닥을 두드리고 눈을 까뒤집고, 고함을 지르고 그야말로 광신적”이다. 이호철은 작품 전체에 걸쳐 동일한 모습을 7번 이상 반복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그러한 모습을 “광신”(100면), “발광”(108면), “광란”(106면)으로 규정한다. 광신은 결말 부분에서 언덕교회를 불태우고 목사 자신이 불타 죽으며, 자신들의 교회마저 불태운 채, 밤마다 광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광야가 “광란의 소용돌이로 변”(112면)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처럼 기독교가 광신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사상』에서도 여러 차례 비판이 있었다. 「한국 광신주의의 정신 분석학적 고찰」(1968.2)은 광신주의가 “일종의 종말의식과 죄의식을 강조하여 교도들은 땅을 치

39) 마태복음 14장 10절-11절에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 가니라”라고 되어 있다.

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울부지게 한다"고 하면서 "죄책감과 불안감을 증가시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마비시키며,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해한 것"이라고 비판한다.[40] 그리고 「한국교회와 부흥회」(1961.6)는 부흥회가 "광신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부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교계에 일대 풍파를 일으키고 분열, 독선, 광태, 가정파탄 등 혼란을 빚어내"[41]고 있다고 비판한다. 아래 교회의 예배 모습, 그리고 언덕 교회를 불태우는 극단적인 모습은 방언, 입신, 치병 등으로 인해 1970년대 특히 문제가 되었던 "광신주의 현상의 범람"[42]을 앞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호철이 이러한 아래 교회를 "토박이 성결교회"로 명시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성결교회는 장로교회와 달리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일본의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을 졸업한 한국인에 의해 전도가 시작되었던 만큼, 토착성이 다른 교단에 비해 강했다. 동양선교회는 19세기말 결성된 만국성결연맹의 급진파 성결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동양선교회가 "만국성결연맹과 같이 재림을 사중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하나로서 강조하였으며 한국 성결 교회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43]었다는 점이다. 성결교회는 일제말 "재림에 대한 강조 때문에 다른 대교단들과 달리 강제 해산당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44] 성결교회는 세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며, 천년 왕국 전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40) 심일섭, 「한국 광신주의의 정신 분석적 고찰」, 『기독교사상』, 1968.2, 102면, 100면.

41) 마경일, 「한국교회와 부흥회」, 『기독교사상』, 1961.6, 19면.

42) 한 좌담회에서는 "결국 정치적 불안정에서 오는 현상과 자기 나름의 생활철학의 결핍, 그리고 종교가 그 본연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늘과 같은 광신주의 현상의 범람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본다. 유동식·이영찬·마경일·김광일, 「좌담: 오도된 신비체험으로서의 광신주의」, 『기독교사상』, 1971.5, 99면.

43)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 종말론의 역사와 신학」, 『근대 복음주의의 주요 흐름: 한국 성결교회의 배경에 대한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11, 211면.

44) 배덕만, 김승태, 「사중 복음을 통해 본 한국성결교회 신학사상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7, 32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데, 성결교회 3세대 신학자 박명수에 따를 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구별과, 대환란 전 예수의 공중 재림 시 신도들의 들림, 즉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휴거론이다.[45] 성결교회에 강한 영향을 미친 1세대 신학자 이명직 목사는 "이때는 세상을 개량하고 사회를 개량하는 사업보다도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라고 하여. "성결교회를 비정치화"로 이끌었다.[46] 이를 고려하면 이호철의 광신 비판은 재림론이 성결교회의 비정치화에서 더 나아가 자칫 광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작품이 후반부로 갈수록 밑 교회의 모습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몰입하는 광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윤성범은 「메시아니즘과 종말론(1963)」에서 종말론자들이 "농토를 버리고 노천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를 들고(누가복음 21장 28절) 찬송을 부르면서 이 위대한 이적을 열정적으로 대망하"[47]였다고 묘사하는데, 「고여 있는 바닥」의 마지막에서 "그들은 밤이면 광야에 몰려들어 어두운 무한천공을 향해 같은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중략) 어두운 밤마다 광야는 광란의 소용돌이로 변하였다"(112면)는 묘사는 종말론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때 밑 교회의 신도들은 언덕 교회로 쳐들어갈 때 불렀던 두 가지의 찬송가를 또다시 부른다.

(1) 피란처 있으니/환란을 당한 자/이리 오게/땅들이 변하고/물결이 일어나고/산 위에 넘치되/두렵지 않네.(112면)

45) 박명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세대주의와 성결운동이 만나는 점은 휴거론의 공중 혼인잔치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휴거이다. (중략) 죄씻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들림받게 된다는 것이다." 박명수, 앞의 글, 210면.

46) 배덕만, 김승태, 앞의 글, 27면.

47) 윤성범, 「메시아니즘과 종말론」, 『사상계』, 1963.2, 164면.

(2) 대속하신/구주께서/구름 타고 오실 때/천만 성도/함께 나와 반열 찾아 오시네.(112면)

성결교회의 찬송가집은 원래 『복음가』(1907)와 『부흥성가』(1930)였는데, 이후 장로교, 감리교와 함께 찬송가집 연합에 참여하여 1950년에 발행한 『합동찬송가』를 공인찬송가집으로 사용하였다.[48] 『합동찬송가』를 1967년까지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1)과 (2)는 각각 『합동찬송가』에 실린 468번과 147번 찬송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49] (1)은 환난, 즉 고난을 당한 자 오라,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는 내용으로서, 언덕 교회로 향하는, 그리고 언덕 교회를 불태운 후 광야에서 기도하는 밑 교회 신도들의, 환난을 당한 자로서의 자기 규정과 두려움 없음을 대변한다. 특히 (2)는 예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찬송가 147번은 제자들이 재림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의 대답 중 하나인 마태복음 24장 29절-31절의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중략)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와 누가복음 21장 27절-28절의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 아래 교회 신도들이 "어두운 밤마다 광야"에 이와 같은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환난에 대한 두려움 혹은 두려움 없음과, 성경에서 제시되는 재림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8) 1967년부터는 장감성이 연합으로 출간한 『개편찬송가』를 사용하였고, 1983년부터는 현재의 『통일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다.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예솔, 2002, 286-287면,

49) 『합동찬송가』는 "세 교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 중 각 교파의 특이한 것은 전부를 편입하기로 하고, 공통의 것은 가사를 적절히 선택하여 편입하기로 하는 원칙 밑에서" 편찬되었으며, 468번 147번 찬송가는 각각 '평화'와 '재림'이라는 제목 분류 하에 수록되어 있다. 찬송가합동위원회 대표 김춘배, 「서문」, 『찬송가』, 대한기독교서회, 1954, 2면.

광신은 관점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도 있다. 알베르토 토스카노에 따르면 근대 이후의 천년왕국운동의 경우 광신이지만 자본주의에 대항한 주변부 세력(빈농)의 급진적 정치성을 품고 있었다. 광신은 “총체적인 부정성과 불가능한 열망”을 담고 있으며, “체제 전복적인 유토피아적 긍정성”을 가질 수도 있다.[50]

>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저렇게 야위어 빠진 예수님은 대가리가 잘룩 잘리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아져 있다, (중략) 저렇게 억울해서, 죽어서도 할 짓이 없어, 눈을 뜨고 앉아 있다. 차마 이렇게는 못 지껄이고, 그저 고함을 지르고 마룻바닥을 두드리고, 허리를 폈다가 꾸부렸다가 가슴에 성호를 짚었다가 하며 온 육신과 영혼을 쥐어 짜내어 발광질을 하는 것이다.(101면)

밑 교회의 모습은, 물론 이러한 유토피아적 긍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이호철은 그 근원에 한국 전쟁 이후 가난한 자들의 절망과 억울함이 담겨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 서술자는 “돈 있는 자의 예수님은 사치에 불과하기가 쉽지만, 가난한 자의 예수님은 애오라지 기대어야 할 마지막 의거처”(102면)라고 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현세의 삶이 억울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마루바닥을 두드리고 육신과 영혼을 쥐어 짜내어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4. ‘언덕 교회(장로교회)’의 위선과 바리새주의 비판

‘언덕 교회’(장로교회)에 대한 비판은 ‘밑 교회’ 비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50) 알베르토 토스카노, 문강형준 옮김, 『광신: 어느 저주받은 개념의 계보학』, 후마니타스, 2013, 120면.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장로교회는 성결교회에 비할 때 한국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는데, 이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9년 현재 성결교회 신자는 10만 명인 데 반해 장로교회 신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20만 명,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14만 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55만명,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28만 명(1961년)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51] 앞서 서술한 바 있듯이 「고여 있는 바닥」의 언덕교회는 가난한 아래 교회와 달리 부유한 자들이 다니는 교회이고, 목사 역시 영국 유학파 출신의 목사이며, 교회의 분위기 또한 "교양과 품위가 넘쳐"흐르는 것으로 묘사된다. 중·상 계층의 신자 "대부분은 극히 현세 긍정적 세계관을 갖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교리 이해와 조용한 교회 생활을 추구"[52]하는데, 밑 교회 신자들과 비교할 때, 언덕 교회의 신자들 또한 겉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들의 현실 긍정성은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 읽는 성경 내용에서 이미 드러난다.

>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는 헌칠한 키에 윤곽이 분명하게 정력적으로 잘 생긴 얼굴과 균형 잡힌 풍채를 지녔고, 설교가 간사해 보일 정도로 능숙하였다. (중략)
>
> "자, 여러분 누가복음 오장 육절을 펴십시다. 펴셨습니까, 펴셨습니까."
>
> 안경 쓴 얼굴로 생글생글 웃지는 않았으나, 어쩐지 생글생글 웃는다고 착각이 드는 그런 목소리였다.(96면)

"때가 묻은 너덜너덜한 와이셔츠를 입고"(98면), "꾀죄죄한 얼굴이 정말 가난한 국민학교 교사 꼴인"(98면) 밑 교회의 목사와 달리 언덕 교회의 목

5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한국교회100년종합조사연구: 보고서』, 1982, 145-153 참조.
52) 김병서, 앞의 글, 91면.

사는 헌칠한 키에 균형 잡힌 풍채를 지녔다. 그러한 목사가 설교를 위해 읽는 성경이 누가복음 5장 6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오장 육절을 (중략) 착각이 드는 그런 목소리였다.”는 동일한 구절이 98면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는 그들의 믿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시몬의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던 예수가 시몬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였을 때,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누가복음 5장 5절)한다. 그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5장 6절이다. 작품 속에 누가복음 5장 6절의 구체적인 구절도, 이후의 설교 내용도 제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믿음에 따를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 믿음이 부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의 설교가 이어질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강원룡이 당대의 기독교에 대해 광신과 함께 “위선적이고 불성실한 인간들의 사교장으로 타락”[53]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듯이 이호철 역시 이처럼 부유한 자들의 교회인 언덕 교회의 위선과 사교장으로의 타락을 고발 풍자한다. 그들의 믿음은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읽는 성경 구절에서 드러나듯 부의 축적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며, 그들의 품위와 교양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경멸과 천시 나아가서는 적대에 기초해 있다. 애초에 밑 교회 사람들은 언덕 교회에 대해 “복 받은 사람들이지요. 복 받은 사람이구말구요.”(101면)라고 부러워하고 성가대에 대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제자와 다름이 없지 뭡니까.”(102면)라고 말하며 선망할지언정 적대하지는 않는다.

(1) “아래 교회는 여간 천하지 않아요. 오줌내가 물씬 나고 그 옆을 지

53) 강원룡, 「비종교적 현대기독교의 파악」, 『사상계』, 1963.9, 224면.

나오기만 해도 역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걸요."(102면)

(2) "외국 사람들도 보는데 망신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 교회만 보고, 한국 교인들을 모두 그렇게 야만인으로 취급할 것 아니예요?"(102-103면)

(3) "저 밑이라니? 성결교회 말이요?" "네에. 그거 없애치워야겠어요." "……?" "국민의 위신도 있고, 교의 위신도 있구……."(105면)

반면 밑 교회와 달리 언덕 교회 신도들은 가난한 자, 타자를 천시하고 야만인을 대하듯 경멸하며, 급기야는 그들의 교회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고난에 동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는 세속화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언덕 교회의 모습은 반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호철의 언덕 교회 묘사는 이와 방향을 같이 한다. 풍채 좋은 언덕 교회의 목사는 사실 신부였을 때 "어떤 외과 의사의 마누라였던 중년 과수에 손을 댔다가" 쫓겨난 후 "제 편리한 방법대로 신교로 개종을 하고 목사 자격증을 얻었"(96면) 으며, 언덕 교회 남녀 신도들 역시 겉모양의 "교양과 품위"와 달리 그 이면에는 성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모든 여인들이 골고루 자기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중략) 이러한 자의 페미니즘이 대개 그렇듯이, 일보전(一步前) 후퇴를 하기까지 이르는, 그 별반 부담이 안 되는 아기자기한 향락을 즐기는 것이었다. 적당히 어수룩하게 보여주고, 적당히 수월히 가까워 오도록 만들어 놓고, 피차 부담이 안 되는 은밀한 교환, 그저 그것으로만 족한 것이었다. (104면)

권 집사는 만주에서 관동군의 고위 촉탁으로 있었던 홀아비로서 "금욕주의를 모토로 정하"(104면)여 실천하면서도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여신도들과의 은밀하고 아기자기한 향락을 즐기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신도

들 속에서 “코를 벌름거리며 여자들의 서늘한 향수 냄새를 열심히 맡”(111면)는 모습은 매우 희극적이다. 여신도들 역시 이에 호응하여 마치 남편에 하듯 반말을 하면서 은밀하게 대하는데, 밑 교회 사람들이 몰려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108면)한다.

> 그런 계제나 되어야 얼결에 하듯이 저 목사의 가슴팍을 끌어안고 얼굴을 묻어볼 수 있고, 혹은 권 집사의 떡 벌어진 가슴에 끌어안겨 볼 수가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점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개의 금테 은테 무테 마나님들이 모두 생각들이 비슷해서, 겉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벌써부터 실질적으로 경합이 붙어있는 격이었다.(108면)

권 집사에 안 길 것인가, 목사에게 안길 것인가 경합이 붙었다는 서술은 여신도와 권집사, 목사 사이에 놓여 있는 은밀한 성적 욕망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목사와 권 집사의 불편한 관계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목사는 권 집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명분상의 이유는, 자기는 서구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았고 권 집사는 일본제국주의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인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점”(104면) 때문이다. 금욕주의 아래의 은밀한 성적 향락은 작품 결말에서 권 집사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던 마나님의 자살과, 당골 마나님과의 목사의 재혼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서술되는데, 이런 일련의 모습은 “불성한 인간들의 사교장으로 타락”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들의 적대의 근본에는 바리새적 분리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 (1) “그러구 담배를 피운대나봐요.” “담배는 양담배루 그 딸이 댄다는군요.” “딸은 무엇하는데요?” “양부인이래요.” “어마나” 모두 입에 손을 가

져다 댄다. “그거 없애치워야겠군요.”(102면)

(2) 기독교의 윤리의 본질적인 것은 악을 피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것이다. 그 적극적인 윤리의식은 인간을 신자, 불신자 또는 성자와 악인 등으로 딱딱 갈라놓는 바리새적인 분리주의가 아니고 세리와 창기와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귀어 가는 인간주의인 것이다.[54]

강원룡은 「회칠한 무덤을 파 헤쳐라」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안 마시는 등의 소극적 윤리의식만을 고집하며 불신자와 사이에 담을 쌓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비본질적 도덕주의를 바리새적 분리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인용문 (2)에서 제시되듯 세리와 창기까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귀어가는 인간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따른다면 담배 피우는 자, 양부인인 밑 교회 목사의 딸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인용문 (1)에서 드러나듯 언덕 교회 사람들은 바리새적 분리주의에 입각해 이들 간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하는 것이다. 밑 교회 신도들이 분노한 것은 자신들에게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밑 교회 목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아, 여러분 마태복음 삼장 칠절을 펴십시다. 두 장째입니다. ……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닐아대 독샤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라쳐 임박한 진노를 피라라 하더냐.(101면)

세례 요한과 예수가 가장 비판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바로 그들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할 때, 밑 교회 신도들에게 언덕 교회 사람들이

54) 강원룡, 「회칠한 무덤을 파 헤쳐라」, 『사상계』, 1961.10, 267면.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로 보였던 것이며, 그들이 언덕 교회로 가 교회를 불태운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찬송가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의 바로 앞 부분 마태복음 24장 1절-2절과 누가복음 21장 5절-6절, 즉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한 예수의 예언의 실행을 의미한다. 언덕 교회는 바리새인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이고, 그것을 불태우는 것은 바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예수의 예언의 실행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밑 교회의 광신이 절정에 이르는, 언덕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 스스로 불타 죽는 마지막 장면은 광신의 결과임에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처럼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측은 분명 언덕 교회이다. 그들의 밑 교회에 대한 적대는 비단 성결교회와 장로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교파 혹은 교단 간 갈등과 적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 교회의 분열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결교회와 장로교회의 갈등은 매우 뿌리 깊은 것이었고[55] 장로교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장로교회는 세 번의 분열을 겪게 되고 각 교단 혹은 교파로 분리된다.[56] 이는 교권, 신학과 교리 차이로 인

55) 한 연구에 따르면 1933년 9월 28일 평안북도 선천 남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인이 성결교회로 가면 이명하는 일은 권징 조례 7장 53조대로 할 것이며, (중략) 성결교회 교역자와 서로 연락을 취하는 교역자는 노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며, 양 교회로 내왕하는 교인은 해당회가 권징할 사(事)"와 같은 "악의에 찬 결의"를 한 바 있다고 한다. 이용호, 「성결교회에 대한 조선 장로교회의 부당한 결의」, 『성결교회와 신학』 8권,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149면.

56)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갈등하여 1951년 대

한 분리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속화에 대한 대처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분열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성서, 율법, 전통 등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57]을 보여준 고신의 독립이 세속화에 대한 철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자유주의적 성향의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독립은 "세속화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58]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의 분리 역시 세속화를 어느 정도까지 긍정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속화의 핵심은 다원화에 있다. 특수한 종교의 독점권이 상실되고 다원화되면서, 모든 종교는 시장 상황하에 놓이게 된다. 종교는 소비자 수요에 의존하는 하나의 상품이 되며, 대중의 소비적 수요가 종교를 규정하게 된다.[59] 그 결과 "교회는 자기의 고객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의 힘'만으로 노력해야"[60] 하는 상황에 처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 교회가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공교회 윤리가 무너지고 '개교회주의' 원리에 입각해 발전해 왔고, 그로 인해 교회 간 갈등과 적대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61] 「고여 있는 바닥」의 성결교회와 장로교회의 대립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

한예수교장로회 고신(고려신학대학)으로 독립하였고, 1953년 자유주의 신학 논쟁을 겪으면서 김재준을 위시한 자유주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독립하였으며, 1959년 에큐메니컬운동(교회일치운동)과 WCC 참여 여부를 놓고 찬성 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으로, 용공주의라고 비판하던 반대 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으로 분리된다. 김광채,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전망」, 『개신논문집』, 개신대학원대학교, 2002.5 참조.

57) 노치준, 「해방 후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 세속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회 조직』, 민영사, 1995, 320면.

58) 노치준 위의 글, 325면.

59) 최현종, 「세속화」, 『21세기 종교사회학』, 다산출판사, 2013, 96면.

60) 피터 버거, 이양구 옮김,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93, 150면.

61) 개교회주의란 교회의 운영 원리로서 "'교회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전개하며 교회내의 인적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별교회 내부의 문제 특별히 개별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태도 또는 방침'을 말한다." 개교회주의는 "한국교회의 성격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다. 노치준,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상』, 1986.5, 80면, 81면.

폐해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개교회주의로 인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은 개별 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집중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한 교회가 흥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는 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교회 간 경쟁과 적대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62] 개교회주의로 인한 갈등과 폐해는 1970년대에 이르면 특히 심해진다.[63]

게오르그 짐멜에 따르면 근대에 들어 종교 역시 당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이해 영역들의 대립을 초월한 심판자로서의 종교 역시 "더 이상 자신의 최고의 순간에 도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전장으로 내려와 자신이 이전에 통일시켰던 존재의 이중적 측면에서 한쪽 편을 든다."[64] 개교회주의야말로 교회가 이처럼 개별 당파로서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면서 경쟁하고 적대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데, 물론 이해관계의 핵심, 그 근원에는 돈이 자리잡고 있다.

(1) "웃교회는 연보도 무척 비싸답니다."

"비쌀테지요. 돈만 있으면야 예수님 모시는 데에 아까울 수 있나요? 복 받은 사람들이지 복 받은 사람들이고 말구요." (중략)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돌아가는 밑 교회의 노파들은 조용히 한숨을 내뿜는다.(103면)

---

62) 노치준에 따르면 개교회주의는 개별 교회의 신도들의 증가와 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 간 불균형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교회의 목적을 전치시키며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해 불신과 반발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는다. 노치준, 위의 글, 96-103면.

63) 70년대 들어 종교적 영역의 재벌이라 불릴 수 있는 대형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개교회주의와 분리해서 설명될 수 없다(이만열,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현대사와 개신교』, 동연, 2020, 271-272면 참조). 또한 1982년 현재, 교회 재정의 3% 미만을 사회봉사 영역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교회 안의 경비로 사용하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자신의 교회만을 우선시하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폐해가 지속, 강화된다. 이는 1982년 장로, 감리, 성결 등 154개 교회의 재정 분석 결과이다. 노치준, 「한국교회의 재정구조(1): 1982년 자료 분석」, 『한국교회의 조직, 민영사, 1995, 201면.

64)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길, 2013, 879-880면.

(2) 그런 일들은 잠깐의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다. 장로교회는 더욱 융성 발전해가고 그럴수록 앞으로는 곪아들기 시작하였다. 목사의 딸도 차츰 그들에 알맞은 추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권 집사는 그 후 이 교회에 발을 끊고 다른 교회로 옮겼다. 광야의 소용돌이는 밤마다 부풀어 가는 것이었다.(112면)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복 받은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란 말인가? 인용문 (1)의 노파의 한숨은 빈부의 차이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근원에는 돈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호철이 보기에 당대 기독교는 이념상으로는 예수와 사랑을 주장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첨예하게 적대하며 경쟁하는 것이고 그 근원에는 돈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교회를 위해 쓸 돈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신도들의 수가 늘어나야 하고 신도들이 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회들 간의 경쟁과 적대가 여러 방식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65]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되는 인용문 (2)는 이후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교회는 두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한편으로 어떤 교회들은 "더욱 융성 발전해"가고, 다른 한편 어떤 교회들은 광신 속에서 더욱 "소용돌이"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65) 1979년에 이르면 성결교의 경우 31만 명으로 증가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96만 명, 합동은 1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반면 대한기독교장로회는 21만 명으로 1959년 19만 명의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문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한국교회100년종합조사연구: 보고서』, 1982, 145-153면 참조. 장로교회 중 개교회주의 운영 원리에 충실했던 합동, 통합은 신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회에 대한 참여를 강조했던 기장은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문다는 점, 특히 순복음교회의 경우 단일 교회로서 유례가 없이, 1973년 1만 8천 명에서 1981년 20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점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결론

밑 교회(성결교회)와 언덕 교회(장로교회)의 적대를 다루고 있는 「고여 있는 바닥(『현대문학』, 1965.6)은 이제까지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고는 『기독교사상』과 『사상계』에 실린 세속화 논의를 배경으로 이호철의 「고여 있는 바닥」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독교 비판을 살펴보았다. 이호철이 과연 세속화 논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여 있는 바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의 신도 수가 60년대부터 수직 상승하였고, 60년대 들어 한국 기독교가 향후의 기독교의 방향을 결정짓는, 본격적인 신학 논쟁인 세속화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런 시대적 흐름에 견주어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다음 시대를 예견하는, 근본적인 차원의 기독교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고여 있는 바닥」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한편으로는 광신주의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위선과, 바리새적 분리주의에서 비롯되는 적대에서 찾고 있다. 광신주의는 가난한 자들이 주로 나오는 밑 교회의 예배 모습에서 단적으로 제시되며, 언덕 교회를 불태우고 광야로 나아가 기도드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 또 한편으로 언덕 교회를 통해서 겉모양만 교양과 품위를 내세우는 위선을 비판한다. 언덕 교회의 믿음은 부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려지며, 겉모양과 달리 신도들 사이에는 성적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천시하고 경멸하고, 바리새적 분리주의 속에서 밑 교회에 대하여 적대하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밑 교회 신도들의 분노와 방화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 간 경쟁과 적대를 비판한다.

스피노자는 『신학정치학』에서 교회 간의 신학적 증오만큼 폭력인 경우도 없으며, 그 모든 것이 미신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66] 이호철의 「고여 있는 바닥」은 기독교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적대적 정념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러한 비판은, 적대적 정념의 과잉이 보존 욕망의 도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증오가 상황에 따라 쉽게 교회 밖의 사회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여 있는 바닥」을 통한 1960년대 기독교 비판은 60년대에 대한 비판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후 한국교회가 걷게 될 동전의 앞뒷면 같은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벤야민은 「종교로서의 자본주의」에서 "종교 개혁기에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흥기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했다기보다, 기독교 자체가 자본주의로 변형되었"[67]으며 "자본주의는 (중략) 서구에서 기독교에 기생하여 발전해 왔고, 종국에는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의 기생충인 자본주의의 역사가 되는 형태로 발전해왔"[68]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 한국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60년대야말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시기가 아닐까? 벤야민의 말을 빌리면 이호철이 비판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의 광신주의와 바리새적 위선은 "자본주의로 변형"된 기독교의 쌍생아적 모습일 수 있는데, 이것의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서 이호철의 비판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비판이고 현재로 올수록 더욱 실감나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

66) 스피노자는 두려움이 미신을 낳고 미신이 인간을 광기로 내몬다고 보는데, 이는 밑 교회의 신도들의 정념의 변화와 정확히 일치한다. B. 스피노자, 황태연 역, 「서론」, 『신학정치론』, 비홍출판사, 2013;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옮김, 「'신학정치론' : 민주주의 선언」, 『스피노자와 정치』, 그린비, 2014, 75-76면 참조.

67)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길, 2008, 125면.

68) 발터 벤야민, 위의 글, 124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호철, 「고여 있는 바닥」, 『현대문학』, 1965.6.
_____, 「소설가의 자세」, 『현대한국문학전집8』, 신구문화사, 1968.
_____, 「구멍 뚫린 화폐」, 『아세아』, 1969.2.
강문규, 「세속주의와 세속화」, 『기독교사상』, 1965.2.
강원룡, 「회칠한 무덤을 파헤쳐라」, 『사상계』, 1961.10.
_____, 「비종교적 현대기독교의 파악」, 『사상계』, 1963.9
고범서, 「독재에 항거한 신학자」, 『사상계』, 1964.10.
김의환, 「세속화는 기독교를 교회에서 세상으로 옮기는 것인가」, 『기독교사상』, 1967.12.
노홍섭·서남동·안병무·윤성범, 「좌담회 신은 과연 죽었는가: 신의 죽음의 신학」, 『사상계』, 1966.8.
마경일, 「한국교회와 부흥회」, 『기독교사상』, 1961.6.
심일섭, 「한국 광신주의의 정신 분석적 고찰」, 『기독교사상』, 1968.2.
서남동, 「복음전달과 그 세속적 해석」, 『기독교사상』, 1965.2.
_____, 「세속화 과정과 그리스도교」, 『기독교사상』, 1966.2.
안명무·김관석, 「대담: 종교의 세속화와 사회참여」,『사상계』, 1968.4.
유동식, 「복음의 세속성」, 『기독교사상』, 1967.12.
유동식·이영찬·마경일·김광일, 「좌담: 오도된 신비체험으로서의 광신주의」, 『기독교사상』, 1971.5
윤성범, 「메시아니즘과 종말론」, 『사상계』, 1963.2.
이종성, 「기독교의 세속화와 복음의 주체성」, 『기독교사상』, 1966.3
찬송가합동위원회 대표 김춘배, 『찬송가』, 대한기독교서회, 1954.
허혁, 「복음화냐 세속화냐」, 『기독교사상』, 1965.12.

2. 단행본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책방, 2017.
박봉랑, 『신의 세속화』,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예솔, 2002.
유동식, 『한국 신학의 광맥』, 전망사, 1982.
최현종, 『21세기 종교사회학』, 다산출판사, 2013.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한국교회100년종합조사연구: 보고서』, 1982.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길, 2013.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길, 2008.
B. 스피노자, 황태연 옮김, 『신학정치론』, 비홍출판사, 2013.
알베르토 토스카노, 문강형준 옮김, 『광신: 어느 저주받은 개념의 계보학』, 후마니타스, 2013.
에밀 뒤르켐, 민혜숙노치준 옮김,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한길사, 2020.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옮김, 『스피노자와 정치』, 그린비, 2014.
피터 버거, 이양구 옮김,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93.
피터 버거, 김덕영 옮김,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대한기독교서회, 2002.

3. 논문

권영민, 「닫힘과 열림의 변증법」, 『한국현대작품연구』, 문학사상사, 1991, 179-190면.
김광채,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전망」, 『개신논문집』, 개신대학원대학교, 2002.5, 68-81면.
김병서, 「한국교회의 계층성과 장로제도」, 『기독교사상』, 1994.6, 86-98면.
김재명, 「세속화론에 대한 지구화론적 관점의 이해」 『종교문화연구』, 한신대학교종교문화연구소, 2009.6, 147-175면.
김준현, 「반공주의의 내면화와 1960년대 풍자소설의 한 경향-이호철, 서기원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1집, 상허학회, 2007, 111-139면.
김윤식, 「풍자의 방법과 리얼리즘」, 『현대문학』 1968.10, 303-312면.
김택호, 「일상에 억압된 소시민들에 대한 풍자-1960년대 이호철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No 14, 2005, 91-113면.
노치준,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상』, 1986.5, 80-105면.
_____, 「해방 후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 세속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회 조직』, 민영사, 1995, 305-342면.
_____, 「한국교회의 재정구조(1): 1982년 자료 분석」, 『한국의 교회 조직』, 민영사, 1995, 63-144면.
류동규, 「이호철의 자전적 소설에 나타난 월남민의 정체성」, 『비평문학』 33호, 비평문학회, 2009, 191-212면.
민현기, 「이호철의 풍자소설」, 『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및 작품론』, 새미, 1989, 123-131면.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 종말론의 역사와 신학」, 『근대 복음주의의 주요 흐름: 한국성결교회의 배경에 대한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11.

배덕만, 김승태, 「사중 복음을 통해 본 한국성결교회 신학사상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7, 173-216면.

양윤모, 「서구문화의 수용과 혼란에 대한 연구: 최인훈의 '크리스마스캐럴' 연구」, 『우리어문연구』 14, 우리어문학회, 2000, 125면-150면.

이만열,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현대사와 개신교』, 동연, 2020, 255-287면.

이용호, 「성결교회에 대한 조선 장로교회의 부당한 결의」, 『성결교회와 신학』 8권,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148-170면.

임규찬, 「상황과 운명, 탈향과 귀향 사이: 이호철의 소설세계」, 『창작과비평』, 2016.12, 385-397면.

이호규, 「1960년대 패러디 소설의 반영론적 연구」, 『어문논집』 42집, 중앙어문학회, 2009, 407-435면.

정상운, 「세속화 시대의 성결신학: 성결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2, 101-122면.

정명환, 「실향민의 문학: 이호철의 소시민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1967.6, 235-245면.

정재영, 「근대화와 한국 개신교: 세속화론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17집, 동양사회사상학회, 2009, 27-58면.

조현일, 「비상사태기의 문학과 정치: 1970년대 전반기 민중문학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9-42면.

홍철기, 「세속화와 정치신학」, 『문학과사회』 2014 겨울, 411-428면.

<Abstract>

A Study on Lee Ho-cheol's Critique of Christianity in the 1960s

−Focusing on ‘the secularization debate’ and “A Pooled Floor”

Jo, Hyeon-il

“A Pooled Floor” (“C*ontemporary Literature*”, June 1965) was almost forgotten as it was not published in the later works.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is either. This study sees the secularization debate at the center of Korean Christian theology in the 1960s. Therefore, this study first considered the secularization theology published in “*Gidokgyosasang*” and “*Sasang*”. And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atire and criticism of Christinity in Lee Ho-cheol's “A Pooled Floor”. Kang Won-ryong criticizes the fanaticism and hypocrisy of Christianity in the 1960s, based on the theory of secularization. “A Pooled Floor” also criticizes and satirizes Christianity in two directions. “A Pooled Floor” criticizes Christian fanaticism through the church below (Holiness Church), and through Hill Church (Presbyterian Church), it criticizes Christian hypocrisy and Pharisaic separatism, as well as competition and hostility between churches. The Christian criticism of “A Pooled Floor”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is a criticism that does not lose its validity even today.

Key words: “A Pooled Floor”, secularization, Bonhoeffer, Kang Won-ryong, “*Gidokgyosasang*”, “*Sasangye*”, fanaticism, Pharisainism, satire, Presbyterian, Holiness Church, Christianity, secularization debate, non-religiosity, hymmn, the Bible, hostility

투 고 일 : 2022년 2월 25일 심 사 일 : 2022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2년 3월 10일 수정마감일 : 2022년 3월 20일